

##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과 작업동맹이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강 순 화                      주 영 아<sup>†</sup>                      조 하 나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수퍼비전의 중요한 관계요인인 수퍼비전에서의 자기개방과 작업동맹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 수퍼비전을 실시하고 있는 170쌍의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수퍼비전 직후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최종 168쌍의 설문결과를 AIPM 분석방법을 통해 처리하였다. 자기개방이 만족도에 미치는 APIM 분석 결과,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개방은 각각 자신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며(자기 효과), 또한 상대방 효과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방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효과간 상대적 비교검증을 시행한 결과, 수퍼바이저의 만족도에 대한 효과는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인 상대방 효과보다 수퍼바이저 자기개방인 자기효과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동맹과 만족도 간의 APIM을 수행한 결과, 작업동맹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 모두 자기 효과만이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끼침을 볼 수 있었다.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수퍼바이저 변인에 대한 연구의 의의와 수퍼비전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수퍼비전, 작업동맹, 자기개방, 만족도, APIM

---

<sup>†</sup> 교신저자: 주영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137-86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66  
Tel: 02-584-6851, E-mail: juyou61@daum.net

수퍼비전은 상담 이론과 실재를 통합하는 교육과정으로 상담자 교육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한다. 수퍼비전은 상담과정과 마찬가지로 두 주체, 즉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간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촉진적 관계와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수퍼비전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성이나 개인적 특성과 같은 수퍼바이저 변인, 수퍼바이저 특성변인, 그리고 수퍼비전 관계 및 과정변인을 고려해야 한다. 강지연, 유성경(2006)은 수퍼비전 회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퍼바이저 변인, 수퍼바이저 변인 및 수퍼비전 관계 및 수퍼비전 과정 변인들 간의 관계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최한나, 김창대(2008)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간의 수퍼비전 관계가 수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과 수퍼비전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연구결과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수퍼비전 관련 연구들을 개관해보면, 수퍼바이저의 성장과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퍼비전의 일차적 목적(Harnes, Corey, & Moulton, 2003)에 충실하여 주로 수퍼바이저가 보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수퍼비전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들(김신애, 2008; 방기연, 2006; 손난희, 2007;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수퍼바이저의 보고를 토대로 수퍼비전 관계를 다룬 연구들(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서은경, 2012), 수퍼바이저가 지각한 수퍼바이저 스타일과 수퍼비전 성과를 측정한 연구들(김윤주, 2004; 홍지영, 2005)이 진행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수퍼비전 실

제에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주었다.

그러나 수퍼비전의 현상과 성과, 즉 수퍼바이저 혹은 내담자의 변화 및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퍼비전을 구성하는 두 주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를 함께 연구 대상으로 삼고 수퍼비전 관계변인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자기개방과 작업동맹이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수퍼비전에서의 자기개방이란, 내담자-수퍼바이저-수퍼바이저 삼자 관계에서 수퍼바이저가 이전에는 드러내지 않았던 상담활동과 수퍼비전에 관련된 사항들 즉 자기 자신, 내담자, 상담과정, 그리고 수퍼비전 과정,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수퍼바이저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서 공유하도록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손승희, 2005). 이러한 자기개방을 통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는 상담에서의 실수를 예방하고 수퍼비전 과정을 촉진하여 수퍼비전의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으나, 자기개방은 내담자 보호의 기회를 방해하며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퍼비전의 질을 감소시켜 상담자의 성장을 저해한다(Ladany, 2002; Yerushalmi, 1992; Yourman & Farber, 1996). 따라서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은 수퍼바이저가 상담장면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감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퍼바이저에게 질 높은 수퍼비전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자기개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에게 자신을 편안하게 개방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현상이다. Ladany와 Walker(1996)의 연구에 따르면, 97.2%의 상담자들이 수퍼바이저에게 정보를

다 알리지 않으며, 44%는 임상적 실수를 밝히지 않는다. Yourman과 Farber(1996)의 연구에서도 91.3%의 슈퍼바이저가 내담자와 상담한 내용 중 슈퍼바이저가 탐탁치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내용은 슈퍼비전 과정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며, 38.8%의 슈퍼바이저가 임상적 실수를 생략하고 슈퍼비전에 임함을 보고하고 있다. Mehr, Ladany와 Caski(2010) 또한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84.3%의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에게 개방을 하지 않았고, 회기 중 평균 2.68번, 특히 부정적인 슈퍼비전의 경험 내용은 개방하지 않았다. 슈퍼바이저들은 왜 자기개방을 하지 않는 것인가? 슈퍼바이저가 자기개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손승희(2004)는 슈퍼비전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예상, 평가에 대한 염려,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개방 효과에 대한 의구심, 상담자로서 부족감 인식, 슈퍼바이저의 의도 및 전문성에 대한 신뢰 때문에 슈퍼바이저가 비개방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슈퍼바이저가 자기개방이 어려운 것처럼 슈퍼바이저도 자기개방을 힘들어할까?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은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도 많은 다른 슈퍼비전 개입변인으로 인해 주의를 끌지 못한 변인이었다. Ladany와 Walker(2003)는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은 슈퍼비전 성과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슈퍼비전 작업동맹을 향상시키고, 슈퍼바이저의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로서의 자기개방을 촉진시키며, 촉진적 상담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또한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은 슈퍼비전 관계를 수립하고 전문적 경험에서의 발견을 공유하고, 상담기술의 본보기 모델과 피드백을 제공한다(Farber, 2006).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에 대한 질적 연

구도 이루어졌는데 Knox, Edwards, Hess와 Hill (2011)는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슈퍼비전 상황에서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연구논의에서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은 슈퍼바이저의 임상장면에서의 불안과 걱정을 적정수준으로(normalize) 만들며, 슈퍼비전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기개방과 더불어 슈퍼비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진 작업동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슈퍼비전 작업동맹이란, 서로의 관계에 대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목표, 과제, 유대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Bordin, 1983),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 작업동맹이 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슈퍼바이저의 자기효능감이 상승하며(Efstation, Patton, & Kardash, 1990), 내담자와 슈퍼바이저 간의 상담 작업동맹 또한 높아진다고(Patton & Kivlighan, 1997) 알려져 왔다. 또한 슈퍼비전 작업동맹은 슈퍼바이저의 직업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terner, 2009). 그리고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슈퍼비전 만족도와도 정적 관계를 지지하는 국내외 연구들(Ladany, Ellis, & Freidlander, 1995; Ladany, 1999; Livini, Crowe, Gonzsalvez, 2012; 홍지영, 2008; 강지연, 유성경, 2006)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슈퍼비전 작업동맹이 슈퍼비전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손은정 등, 2006) 작업동맹 하위요인 중 ‘유대’요인만이 슈퍼비전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Ladany, 1999)들이 있었던 바, 슈퍼비전 작업

동맹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개방과 작업동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강한 수퍼비전 작업동맹이 높은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을 예견한다는 연구결과와(Ladany, Walker, & Melincoff, 2001) 자기개방이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혼재하고 있다(Ladany & Walker, 2003). 자기개방과 작업동맹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아직 수행되지 않아 이들의 인과관계를 확언할 수 없으나, 자기개방과 작업동맹이 수퍼비전 관계에서 성과변인의 하나인 만족도의 변인들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퍼비전 관계변인인 자기개방과 작업동맹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수퍼비전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수퍼비전 성과는 다양한 수준에서 측정될 수 있다. 최종적인 수퍼비전 성과는 수퍼비전을 받은 상담자의 상담능력이 향상되어 실제 상담 과정에서 상담 수행 능력이 향상된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반면, 수퍼비전의 즉시적인 성과는 수퍼비전 회기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평가로 측정할 수 있다. 수퍼비전 만족도는 수퍼비전의 즉시적 성과 변인으로 자주 사용되는 변인 중의 하나로서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 만족하게 되면, 상담 실무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이 당면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내담자를 보다 전반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고,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손승희, 2004).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미처 다루지 않았던 수퍼비전의 두 주체, 수퍼바이

저와 수퍼바이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여 수퍼비전 관계변인과 성과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양자 간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APIM(Actor-Partner Independence Model: 이하 APIM) 연구모델을 사용하였다.

즉, 수퍼비전의 과정변인인 자기개방과 작업동맹이 대표적인 수퍼비전 성과변인인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 두 수퍼비전의 두 주체를 대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수퍼바이저의 보고에 따른 수퍼비전 연구에서 벗어나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가 지각한 수퍼비전 과정변인과 성과변인 간의 관계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 식으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를 하나의 연구 단위로 삼을 수 있는 APIM을 사용하여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수퍼비전 과정에 대한 연구는 심리내적인 요소에서 대인 간 현상으로 관심 주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담심리학의 흐름과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와 같이 상호의존성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료의 분석은,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추출해내면서도 통계적 검증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방식이 필요하다. APIM은 짝 관계에 있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양자간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짝자료 분석 방법으로 성격 및 정서(Campbel, Simpson, Boldry, & Kashy, 2005; Robins, Caspi & Moffitt, 2000), 애착(Campbel, Simpson, Kashy, & Rholes, 2001), 부부치료의 효과성검증(Cook, 1998), 결혼만족(박영화, 고재홍, 2005), 부모-자녀 관계(천영희, 고재홍, 2005)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개인과 짝 관계 수준 둘 다를 포함하여

동시에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Campbell & Kashy, 2002)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 커플 자료의 분석에 매우 유용하다고 소개되고 있다. APIM은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자료의 예측적 관계를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로 나누어 검증한다. 자기 효과(actor effect)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 자기 자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 효과(partner effect)란 자신의 특성의 상대방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서정선, 신희천, 2007).

이에 본 연구는 슈퍼바이저 일방의 보고에 따른 슈퍼비전 연구에서 벗어나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가 지각한 슈퍼비전 과정변인과 성과변인 간의 관계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를 하나의 연구 단위로 삼을 수 있는 APIM 모델을 슈퍼비전 장면에 적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자기 개방이 그들의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작업동맹이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어떠한가?

## 방 법

### 연구대상

전국의 대학상담센터와 개인상담소,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있는 슈퍼바이저 89명(남자 5명, 여자 84명)과 그 슈퍼바이저들이 현재 개인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있는 슈퍼바이지 16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슈퍼비전 회기 후 바로 실시하게 하여

그 슈퍼비전 회기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설문지 배부와 수거를 진행하였다. 총 180쌍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70쌍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2쌍의 미흡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68쌍의 설문자료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슈퍼바이저의 개인적 특성과 경험수준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여자 슈퍼바이저의 비율(94.4%)이 남자 슈퍼바이저보다 높았으며, 슈퍼바이저의 연령범위는 만 32세에서 만 68세( $M=46.31$ ,  $SD=7.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의 비율과 기혼의 비율은 각각 80.5%, 19.5%이며, 학력은 박사졸업(67.4%), 박사과정 및 수료(19.1%)등의 순위로 분포하였다. 슈퍼바이저가 보유한 자격증으로는 상담심리사 1급(61.9%), 청소년상담사 1급(6.7%), 청소년상담사 2급(10.4%), 임상심리사 1급(0.7%), 임상심리사 2급(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슈퍼바이저로서 슈퍼비전 경험수준 50회 이하는 24.4%, 40회 이상은 29.1%로 나타났다. 슈퍼바이저의 개인적 특성과 경험 수준은 표 2와 같다. 슈퍼바이저의 연령범위는 만 23세에서 만 62세( $M=36.57$ ,  $SD=10.12$ )였으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92.3%, 7.7%이었다. 학력은 석사졸업(61.2%), 석사과정(27.3%)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자격증 보유는 상담심리사 2급(24.6%), 청소년상담사 2급(16.2%) 등으로 분포하였으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19.4%였다.

### 측정도구

#### 자기개방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을 측정하기 위하여 Farber, Yourman과 Ladany등 (1996)의 연구를 토대로 Yourman(2000)이 개발한 ‘슈퍼비전에서

표 1. 슈퍼바이저의 개인적 특성과 상담 및 슈퍼비전경험수준

| 개인특성 및 경험수준                      |                | 구분                      | n(%)       |           |
|----------------------------------|----------------|-------------------------|------------|-----------|
| 수퍼바이저의<br>개인적 특성                 | 성별<br>(N=89)   | 남자                      | 5(5.6%)    |           |
|                                  |                | 여자                      | 84(94.4%)  |           |
|                                  | 나이<br>(N=89)   | 30대                     | 18(20.2%)  |           |
|                                  |                | 40대                     | 42(47.2%)  |           |
|                                  |                | 50대                     | 24(27.0%)  |           |
|                                  |                | 60대                     | 5(5.6%)    |           |
|                                  | 결혼상태<br>(N=87) | 미혼                      | 70(80.5%)  |           |
|                                  |                | 기혼                      | 17(19.5%)  |           |
|                                  | 학력<br>(N=89)   | 석사졸업                    | 12(13.5%)  |           |
|                                  |                | 박사과정 및 수료               | 17(19.1%)  |           |
|                                  |                | 박사졸업                    | 60(67.4%)  |           |
|                                  | 수퍼바이저<br>경험수준  | 자격증 유무(중복응답)<br>(N=134) | 상담심리사 1급   | 83(61.9%) |
|                                  |                |                         | 청소년 상담사 1급 | 9(6.7%)   |
|                                  |                |                         | 청소년 상담사 2급 | 14(10.4%) |
| 임상심리사 1급                         |                |                         | 1(0.7%)    |           |
| 임상심리사 2급                         |                |                         | 4(2.9%)    |           |
| 기타                               |                |                         | 23(17.1%)  |           |
| 상담사례 수<br>(N=85)                 |                | 1-200사례                 | 38(44.7%)  |           |
|                                  |                | 201-400사례               | 16(18.8%)  |           |
|                                  |                | 401-600사례               | 7(8.2%)    |           |
|                                  |                | 601-800사례               | 6(7.1%)    |           |
|                                  | 801-1000사례     | 4(4.7%)                 |            |           |
|                                  | 1001사례 이상      | 14(16.5%)               |            |           |
| 수퍼바이저로서<br>경험한 슈퍼비전 횟수<br>(N=86) | 1-50회          | 21(24.4%)               |            |           |
|                                  | 51-100회        | 16(18.6%)               |            |           |
|                                  | 101-200회       | 15(17.5%)               |            |           |
|                                  | 201-400회       | 15(17.5%)               |            |           |
|                                  | 401회 이상        | 25(29.1%)               |            |           |

상담자 개방척도(The Supervisory Disclosure Scale: SDS)'를 손승희(2004)가 번안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SDS는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개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손승희(2004)연구에서는 문항

표 2. 슈퍼바이저의 개인적 특성과 상담 및 슈퍼비전 경험수준

| 개인특성 및 경험수준      |                                   | 구분                | n(%)       |           |
|------------------|-----------------------------------|-------------------|------------|-----------|
| 수퍼바이저의<br>개인적 특성 | 성별<br>(N=168)                     | 남자                | 13(7.7%)   |           |
|                  |                                   | 여자                | 155(92.3%) |           |
|                  | 나이<br>(N=167)                     | 20대               | 49(29.3%)  |           |
|                  |                                   | 30대               | 54(32.3%)  |           |
|                  |                                   | 40대               | 44(26.3%)  |           |
|                  |                                   | 50대               | 18(0.9%)   |           |
|                  |                                   | 60대               | 2(1.2%)    |           |
|                  | 결혼상태<br>(N=167)                   | 미혼                | 83(49.7%)  |           |
|                  |                                   | 기혼                | 84(50.3%)  |           |
|                  | 학력<br>(N=165)                     | 석사과정              | 45(27.3%)  |           |
|                  |                                   | 석사졸업              | 101(61.2%) |           |
|                  |                                   | 박사과정 및 수료         | 14(8.5%)   |           |
|                  |                                   | 박사졸업              | 5(3.0%)    |           |
|                  | 자격증 유무(중복응답)<br>N=221             | 상담심리사 1급          | 4(1.8%)    |           |
|                  |                                   | 상담심리사 2급          | 55(24.6%)  |           |
| 청소년 상담사 2급       |                                   | 36(16.2%)         |            |           |
| 청소년 상담사 3급       |                                   | 3(1.3%)           |            |           |
| 임상심리사 1급         |                                   | 6(2.7%)           |            |           |
| 임상심리사 2급         |                                   | 7(3.1%)           |            |           |
| 기타               |                                   | 67(30.3%)         |            |           |
| 없음               |                                   | 43(19.4%)         |            |           |
| 수퍼바이저<br>경험수준    |                                   | 상담사례 수<br>(N=165) | 1-10사례     | 40(24.2%) |
|                  |                                   |                   | 11-50사례    | 73(44.2%) |
|                  | 51-100사례                          |                   | 23(13.8%)  |           |
|                  | 101-300사례                         |                   | 18(10.9%)  |           |
|                  | 301-2000사례                        |                   | 11(6.7%)   |           |
|                  | 수퍼바이저로서 경험한<br>수퍼비전 횟수<br>(N=166) |                   | 1-10회      | 79(47.6%) |
| 11-20회           | 29(17.5%)                         |                   |            |           |
| 21-40회           | 32(19.3%)                         |                   |            |           |
| 41-100회          | 23(13.9%)                         |                   |            |           |
| 101회 이상          | 3(1.8%)                           |                   |            |           |

간 내적 합치도가 .74로 나타났다. SDS는 세 개의 기본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었다. 첫째, '수퍼비전 관계(Supervisory dyad)'는 5문항으로 수퍼바이저와 수퍼비전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개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들이고, 둘째, '상담관계(Therapeutic dyad)'는 3문항으로 구성되며 수퍼바이저와 내담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개방과 관련되었다. 셋째, '평가에 대한 염려(Evaluative concerns)'는 3문항으로 이루어져 수퍼바이저의 인정과 관련된 개방을 반영하였다. APIM 모델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같은 문항 척도(the same evaluation rating scales)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퍼바이저용 자기개방 질문지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들이 SDS를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나는 수퍼비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수퍼바이저에게 기꺼이, 정직하게 전달한다' 문항을 수퍼바이저용으로는 '나는 수퍼비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수퍼바이저에게 기꺼이, 정직하게 전달한다'로 변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 질문지의 Cronbach  $\alpha$ 는 각각 .81과 .73으로 나타났다.

### 작업동맹

Harvath와 Greenberg(1989)가 제작한 상담자-내담자 관계에서의 작업동맹 척도를 Bahrlick, Russel, Salmi(1991)이 수퍼비전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한 것을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2006)이 번안한 작업동맹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또한 수퍼바이저용 작업동맹 질문지 문항은 상담전문가 3인의 합의하에 수퍼바이저 작업동맹 질문지를 수정 구성하였다. 작업동맹 질문지는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서

총36문항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7점 리커트 척도이다. 3개의 하위요인은 수퍼비전 목표에 대한 동의, 과제에 대한 동의, 정서적 유대이다. 손은정 등(2006)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는 .91 이고 본 연구에서 수퍼바이저의 작업동맹 질문지의 Cronbach  $\alpha$ 는 .93이며 수퍼바이저용 작업동맹 질문지의 Cronbach  $\alpha$ 는 .95였다.

### 만족도

Ladany, Hill와 Nutt(1996)가 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Larsen, Attkisson, Hargreaves & Nguyen, 1979)를 수퍼비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질문지이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8개의 문항의 내용에는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시행된 수퍼비전 시간에 대한 만족도, 욕구에 부합하고 효과적인 상담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왕은자(2001)의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Cronbach  $\alpha$ 는 .92였다. 상담심리전문가 3명이 위의 질문지를 수퍼바이저용으로 문항을 수정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만족도의 Cronbach  $\alpha$ 는 .83,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만족도는 .90이었다.

### 분석절차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APIM모형분석은 Cook과 Snyder(2005)의 방법을 따라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후 등가제약모형을 사용하여 효과 간에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hi^2$  차이검증을

하였다.  $x^2$  차이 검증이란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의  $x^2$  값과 본모형의  $x^2$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값이 클 경우 등가제약을 했던 경로들의 경로계수 값은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검증이다. 이 후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작업동맹이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모형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MSEA, TLI, CFI를 보고하고, 기준에 따라 해석하였다.  $x^2$  값이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반해 RMSEA, TLI, CFI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모형, .10보다 작으면 보통 모형,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LI, CFI는 .90이상일 경우 좋은 적합도를 가진다고 본다(홍세희, 2000).

## 결 과

### 기초 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개방과 만족도의 변수들에 대한 각각의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전체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서 제시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의 슈퍼바이저와 슈퍼

바이지의 평균을 기초로 하여 실시한 t검증을 살펴보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은 유의한 차이( $t=-12.59, p<.001$ )가 있고, 만족도 또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점수차이가 유의미한 차이( $t=10.09, p<.001$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기개방의 점수에 있어서는 슈퍼바이저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만족도에 대한 점수는 슈퍼바이지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작업동맹 역시 유의한 평균차이( $t=-2.73, p<.01$ )가 있었다. 즉, 작업동맹에 대한 점수는 슈퍼바이지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고 볼 수 있다.

###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척도는 별도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척도가 분리되어 만들어진 척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척도를 번안 및 수정을 하여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각각의 대상에 맞춰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척도를 사용한 기존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문항을 모두 사용하여 설문을 한 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문항이 각각의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자기개방과 만족도를 잘 측정하는지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요인 부하량의 기준이

표 3.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평균, 표준편차

| 척도   |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지         | 전체            | t         |
|------|---------------|---------------|---------------|-----------|
| 자기개방 | 29.60(3.13)   | 25.51(4.09)   | 27.56(4.17)   | -12.59*** |
| 만족도  | 23.38(2.85)   | 27.48(3.01)   | 25.43(3.57)   | 10.09***  |
| 작업동맹 | 149.04(21.48) | 155.44(20.77) | 152.24(21.33) | -2.73**   |

\* $p<.05$ , \*\* $p<.01$ , \*\*\* $p<.001$

( ) 괄호 속은 표준편차

표준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르면(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 척도의 문항 중 만족도 6번, 자기개방 3, 5, 6, 10번, 작업동맹에서는 1, 7, 11, 12, 14, 19, 28 번의 문항은 기준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항을 제외한 뒤 자기개방 7문항, 만족도 7문항을 가지고 구조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자기개방-만족도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과 만족도에 대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적합도는 RMSEA = .050, TLI = .926, CFI = .934 이었다. 세 적합도 모두 기준에 따라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본 연구 모형은 좋은 모형이라 볼 수 있다. 표 4에 측정 모형의 요인값을 수록하였다.

#### 자기개방-만족도 모형의 쌍 자료 동일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가 동일한 척도에 대해 동일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쌍자료 동일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쌍 자료에 대해 잠재요인의 변량, 오차변량, 측정요인의 값, 절편 값을 동일하게 지정하고 분석하게 된다. 그 결과 개방에 대한 척도의 경우 적합도가 RMSEA = .054, TLI = .914, CFI = .922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족도에 대한 척도의 경우에도 RMSEA = .051, TLI = .924, CFI = .931로 적절한 적합도를 가진다. 즉, 개방과 만족도에 대한 척도 모두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 자기개방이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확인(기본모형)

자기개방이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본 결과 적합도는 RMSEA = .050, TLI = .926, CFI = .934 로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표 5에 따르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은 각각 자신의 만족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개방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만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높을수록 슈퍼바이저의 만족도도 높아지며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높을수록 슈퍼바이저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 자기개방-만족도 모형의 효과 간 상대적 비교검증(등가제약모형)

자기개방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등가제약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기본모형과 비교 분석하였다. 각 효과들 간의 비교를 위해 4개의 등가제약 모형이 설정되었고, 각 등가제약모형과 기본모형의  $\chi^2$  값을 비교하였다. 등가제약모형의  $\chi^2$  값이 기본모형의 값보다 유의하게 커진다면 즉, 적합도가 유의하게 나빠진다면 제약을 가한 두 경로의 크기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기본 모형은 그림 1, 4개의 등가제약 모형은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와 같다. 각 모형의  $\chi^2$  값과 기본모형과의 차이 값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첫째, 슈퍼바이저의 자기효과와 슈퍼바이저

표 4. 측정 모형의 요인값

| 척도            | 문항   | 비표준화<br>요인값 | 표준오차  | Z      | 표준화된<br>요인값 |
|---------------|------|-------------|-------|--------|-------------|
| 수퍼바이저<br>자기개방 | 개방1  | 1           |       |        | 0.722***    |
|               | 개방2  | 1.118       | 0.153 | 7.309  | 0.654***    |
|               | 개방3  | 0.860       | 0.12  | 7.175  | 0.640***    |
|               | 개방4  | 0.681       | 0.126 | 5.391  | 0.474***    |
|               | 개방5  | 1.107       | 0.145 | 7.627  | 0.686***    |
|               | 개방6  | 1           | 0.147 | 6.815  | 0.609***    |
|               | 개방7  | 0.911       | 0.134 | 6.788  | 0.607***    |
| 수퍼바이저<br>자기개방 | 개방1  | 1           |       |        | 0.468***    |
|               | 개방2  | 1.148       | 0.19  | 6.03   | 0.520***    |
|               | 개방3  | 0.653       | 0.183 | 3.569  | 0.353***    |
|               | 개방4  | 0.796       | 0.239 | 3.325  | 0.322***    |
|               | 개방5  | 1.887       | 0.334 | 5.658  | 0.834***    |
|               | 개방6  | 1.407       | 0.28  | 5.029  | 0.611***    |
|               | 개방7  | 1.803       | 0.322 | 5.601  | 0.797***    |
| 수퍼바이저<br>만족도  | 만족도1 | 1           |       |        | 0.810***    |
|               | 만족도2 | 1.128       | 0.122 | 9.261  | 0.716***    |
|               | 만족도3 | 1.085       | 0.122 | 8.885  | 0.692***    |
|               | 만족도4 | 0.727       | 0.153 | 4.763  | 0.392***    |
|               | 만족도5 | 0.826       | 0.093 | 8.898  | 0.688***    |
|               | 만족도6 | 1.137       | 0.108 | 10.497 | 0.795***    |
|               | 만족도7 | 0.967       | 0.143 | 6.777  | 0.542***    |
| 수퍼바이저<br>만족도  | 만족도1 | 1           |       |        | 0.832***    |
|               | 만족도2 | 0.703       | 0.066 | 10.661 | 0.754***    |
|               | 만족도3 | 1.022       | 0.087 | 11.747 | 0.811***    |
|               | 만족도4 | 0.849       | 0.086 | 9.914  | 0.715***    |
|               | 만족도5 | 0.858       | 0.084 | 10.170 | 0.728***    |
|               | 만족도6 | 0.805       | 0.076 | 10.587 | 0.750***    |
|               | 만족도7 | 1.184       | 0.088 | 13.503 | 0.876***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APIM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 추정경로계수                 | 표준화 계수   |
|------------------------|----------|
| 수퍼바이저 자기개방 → 수퍼바이저 만족도 | 0.469*** |
| 수퍼바이저 자기개방 → 수퍼바이저 만족도 | 0.177*   |
| 수퍼바이저 자기개방 → 수퍼바이저 만족도 | 0.261**  |
| 수퍼바이저 자기개방 → 수퍼바이저 만족도 | 0.454*** |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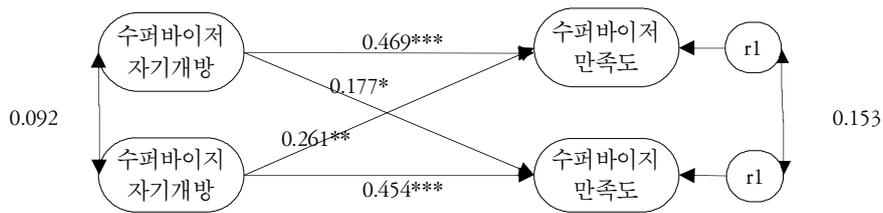


그림 1. 자기개방이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APIM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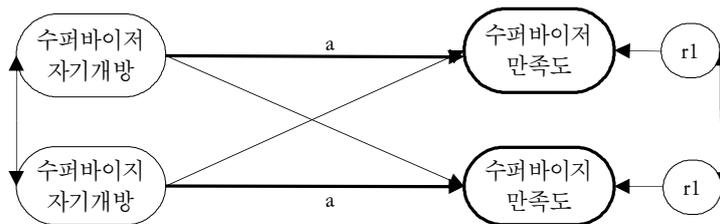


그림 2. 자기개방의 자기효과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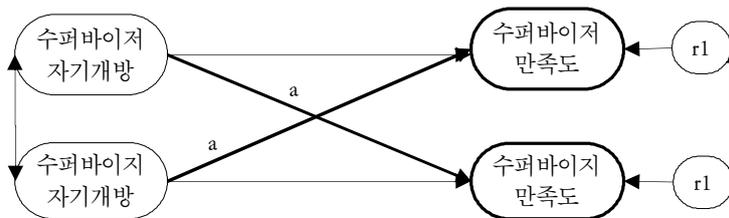


그림 3. 자기개방의 상대방효과 간 비교

의 자기효과는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수퍼바이저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수퍼바이저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지만 그 크기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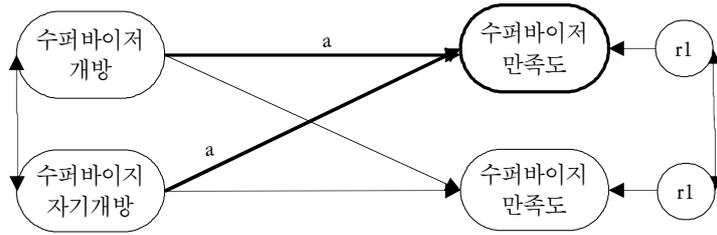


그림 4.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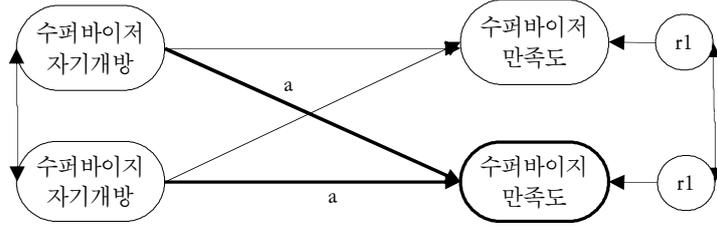


그림 5.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

표 6. 효과 차이비교를 위해 등가제약 모형의  $\chi^2$  차이 검증

| 모형                      | $\chi^2$ | df | $\chi^2$ 차이검증            |
|-------------------------|----------|----|--------------------------|
| (1) 기본모형                | 473.643  | 97 |                          |
| (2) 자기효과 등가모형           | 474.072  | 96 | $\chi^2(1)=0.429, p>.05$ |
| (3) 상대방효과 등가모형          | 473.785  | 96 | $\chi^2(1)=0.142, p>.05$ |
| (4)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에 대한 등가모형 | 475.473  | 96 | $\chi^2(1)=1.830, p>.05$ |
| (5)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에 대한 등가모형 | 478.089  | 96 | $\chi^2(1)=4.446, p<.05$ |

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상대방 효과 역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상대방효과도 유의하나 크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비교 역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에 대

한 효과는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미치는 효과보다 슈퍼바이저가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게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작업동맹-만족도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동맹과 만족도에 대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동맹 변수를 측정하는 척도는 28문항으로 각각을 측정변수로

표 7. 측정 모형의 요인값

| 척도            | 문항   | 비표준화<br>요인값 | 표준오차  | Z      | 표준화된<br>요인값 |
|---------------|------|-------------|-------|--------|-------------|
| 수퍼바이저<br>작업동맹 | 동맹1  | 1           |       |        | 0.803       |
|               | 동맹2  | 1.009       | 0.070 | 14.471 | 0.938***    |
|               | 동맹3  | 1.219       | 0.085 | 14.398 | 0.934***    |
| 수퍼바이저<br>작업동맹 | 동맹1  | 1           |       |        | 0.895       |
|               | 동맹2  | 1.403       | 0.105 | 13.407 | 0.843***    |
|               | 동맹3  | 0.840       | 0.070 | 12.086 | 0.785***    |
| 수퍼바이저<br>만족도  | 만족도1 | 1           |       |        | 0.810***    |
|               | 만족도2 | 1.128       | 0.122 | 9.261  | 0.716***    |
|               | 만족도3 | 1.085       | 0.122 | 8.885  | 0.692***    |
|               | 만족도4 | 0.727       | 0.153 | 4.763  | 0.392***    |
|               | 만족도5 | 0.826       | 0.093 | 8.898  | 0.688***    |
|               | 만족도6 | 1.137       | 0.108 | 10.497 | 0.795***    |
|               | 만족도7 | 0.967       | 0.143 | 6.777  | 0.542***    |
| 수퍼바이저<br>만족도  | 만족도1 | 1           |       |        | 0.832***    |
|               | 만족도2 | 0.703       | 0.066 | 10.661 | 0.754***    |
|               | 만족도3 | 1.022       | 0.087 | 11.747 | 0.811***    |
|               | 만족도4 | 0.849       | 0.086 | 9.914  | 0.715***    |
|               | 만족도5 | 0.858       | 0.084 | 10.170 | 0.728***    |
|               | 만족도6 | 0.805       | 0.076 | 10.587 | 0.750***    |
|               | 만족도7 | 1.184       | 0.088 | 13.503 | 0.876***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8. APIM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 추정경로계수                 | 표준화 계수   |
|------------------------|----------|
| 수퍼바이저 작업동맹 → 수퍼바이저 만족도 | 0.632*** |
| 수퍼바이저 작업동맹 → 수퍼바이저 만족도 | -0.056   |
| 수퍼바이저 작업동맹 → 수퍼바이저 만족도 | 0.136    |
| 수퍼바이저 작업동맹 → 수퍼바이저 만족도 | 0.717*** |

\* $p < .05$ , \*\* $p < .01$ , \*\*\* $p < .001$

널을 경우 추정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개의 측정변수로 무선분할무늬(random parceling)을 실시하여 추정하였다. 검증 결과 적합도는  $RMSEA=.091$ ,  $TLI=.886$ ,  $CFI=.899$  이었다. 적합도는 위의 기준에 따라 보통의 적합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작업동맹-만족도 모형의 쌍 자료 동일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가 동일한 척도에 대해 동일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쌍자료 동일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쌍 자료에 대해 잠재요인의 변량, 오차변량, 측정요인의 값, 절편 값을 동일하게 지정하고 분석하게 된다. 그 결과 동맹에 대한 척도의 경우 적합도가  $RMSEA=.092$ ,  $TLI=.882$ ,  $CFI=.897$ 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족도에 대한 척도의 경우에도  $RMSEA=.051$ ,  $TLI=.924$ ,  $CFI=.931$ 로 좋은 적합도를 가진다. 즉, 동맹과 만족도에 대한 척도 모두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표 7 참조).

#### 작업동맹이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작업동맹이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본 결과 검증 결과 적합도는  $RMSEA=.091$ ,  $TLI=.886$ ,  $CFI=.899$  이었다. 표 8에 따르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작업동맹은 각각 자신의 만족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동맹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만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슈퍼바이저의 작업동맹이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슈퍼바이저의 작업동맹이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기존 슈퍼비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슈퍼비전의 두 주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모두를 대상으로 슈퍼비전에서의 자기개방 및 작업동맹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자기효과)와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상대방효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슈퍼비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 Knox, Burkard, Edwards, Smith와 Schlosser(2008)의 질적 연구 결과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 Farber(2006)가 제안한 바와 같이,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은 슈퍼비전 관계를 수립하고 전문적 경험에서의 발견을 공유하고, 상담기술의 본보기 모델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임을 본 연구에서도 지지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부 및 부모-자녀 간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외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상담과정 연구에 시행된 적이 있는(Kivlighan, 2007; 김동민, 양정여, 2012), APIM 모델을 사용하여 슈퍼바이저-슈퍼바이저 쌍방의 연구를 시도한 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 상담자-내담자 관계가 아닌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관계 연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만족도(자기효과)와 슈퍼바이저 만족도(상대방 효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슈퍼비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강지연, 유성경, 2006; 홍지연, 2005)를 지지한다. 또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슈퍼비전 만족도에 자기효과 뿐만 아니라 상대방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자기개방이 슈퍼비전의 매우 중요한 과정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작업동맹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관한 자기효과-상대방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슈퍼바이저의 작업동맹은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에, 슈퍼바이저의 작업동맹은 슈퍼바이저의 만족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나 상대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작업동맹이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효과가 상대방 효과보다 크다는 본 연구결과는 작업동맹과 슈퍼비전 만족도 간의 정적 관계를 밝히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Ladany, Ellis, & Freidlander, 1995; Ladany, 1999; Livini, Crowe, Gonzsalvez, 2012; 홍지영, 2008; 강지연, 유성경, 2006)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슈퍼비전의 상호작용의 관계변인으로 밝혀진(Baker, 1990; Ladany & Friedlander, 1995) 작업동맹이 상대방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슈퍼비전의 작업동맹을 측정하는 질문지의 타당성 부분이다. 상담 장면에서의 작업동맹 질문지를 슈퍼비전 상황에 적용한 것이어서 슈퍼비전 상황에서의 작업동맹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것에 기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 활용한 작업동맹 질문지는 하위구인이 정서적 유대감, 목표에 대한 합의, 과제에 대한 합의의 3구조 요인으로 되어있으나 이수현, 김동민(2011)은 작업동맹 질문지 하위구인이 3요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긍정문과 부정문의 형태인 2구조 요인으로 확인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측정도구의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존의 상담과정의 작업동맹과는 다른 슈퍼비전에서의 작업동맹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고려점으로는 슈퍼비전에서의 작업동맹은 상담장면에서의 작업동맹만큼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쌍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슈퍼비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업동맹을 보고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반복연구를 통해 검증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즉 지금까지의 슈퍼비전 연구는 주로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 슈퍼바이저의 작업동맹, 자기개방과 만족도의 관계만을 검증해왔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의 만족도가 높으면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 또한 그 역할과 기능을 잘 한 것으로 이해해왔으나 슈퍼바이저 단독의 지각으로서 슈퍼바이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슈퍼비전 만족도에는 자신과 상대방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자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슈퍼비전 과정이 매우 독립적인 과정인 것으로 지각될 수 있다. 그러나 슈퍼비전 과정은 상호작용 과정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보다 더 축적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슈퍼바이저와 동등하게 슈퍼바이저의 지각과 보고를 분석의 대상으로 봄으로써, 슈퍼바이저 변인을 강조하는 연구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제공하였으며, 임상 실제에서는 슈퍼바이저가 자신의 자기개방, 작업동맹, 만족도 등을 성찰함으로써 슈퍼바이저의 성장을 도모하고 또한 슈퍼바이저 자신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국내에는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후속에서는, 예를 들어 슈퍼바이저의 성격 특성과 자기개방과의 관계, 슈퍼비전 단계별 자기개방의 변화,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효과적인 자기개방 내용,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효과적인 자기개방 내용 등에 관한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자기개방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자기개방의 내용과 방법을 슈퍼바이저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이를 슈퍼비전 현장에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비전 교육내용을 제안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슈퍼바이저의 비개방이 매우 흔하게 보고되고 있는 현실에서(손승희, 2005; Ladany & Walker, 1996; Yourman & Farber, 1996; Mehr, Ladany & Caski, 2010)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은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저의 개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높을수록, 내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슈퍼비전의 학습 효과가 상승되어, 유능한 상담가로서의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음을 슈퍼비전을 진행하면서 혹은 상담교육 시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한계점이 있는데 우선, 분석자료로 슈퍼바이저의 중복 보고를 사용한 점이다. 이것은 슈퍼바이저에 비해 경력있는 슈퍼바이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적인 상황이고, 또한 슈퍼비전 상황에서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간 1:1의 독립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엄밀하게 일대일의 관계에서 APIM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측정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동일한 요인임을 확인하긴 하였으나 슈퍼바이저용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못했던 점 또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슈퍼비전에서 과정변인과 결과변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Wampold와 Holloway(1997)는 슈퍼비전 현상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제공하는 모델로 슈퍼바이저의 개인 특성이 슈퍼비전의 과정 변인을 매개로 슈퍼비전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의 제언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과정변인과 결과변인에,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개인특성을 포함한 연구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강지연, 유성경 (2006). 슈퍼바이저 수치심과

- 수퍼비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작업동맹 및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7(4), 1005-1021.
- 김동민, 양정연 (2012). 작업동맹 지각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 성인애착패턴의 효과: 행위자-파트너 상호의존 모델 분석. *상담학연구*, 13(6), 2523-2542.
- 천영희, 고재홍 (2005). 고재홍, 모-청소년 자녀의 자존감, 성격특성 및 의사소통 방식이 상대방과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APIM 모형의 적용. *청소년상담연구*, 13(2), 47-60.
- 김신애 (2008). 초심 상담자의 신경증 정도에 따라 지각한 소집단 수퍼비전 경험차이.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주 (2004). 수퍼바이저 과업 및 기능 수행과 상담 수련생의 수퍼비전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방기연 (2006). 상담심리사의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8(2), 233-254.
- 이수현, 김동민 (2011). 수퍼비전 작업동맹척도 (WAI-T) 요인구조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12(1), 43-62.
- 서은경 (2012). 수퍼바이저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 수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 수치심, 자기수용, 인지대처의 매개효과-상담수련생과 상담자격증 소지자 집단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26.
-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0.
- 소수연, 장성숙 (2011). 효과적인 수퍼비전 요소에 관한 수퍼바이저의 지각 연구. *상담학연구*, 12(3), 1057-1067.
- 손난희 (2007). 상담 수퍼비전에서 초심상담자들의 자기고양적 성향과 위협자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승희 (2004). 개인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승희 (2005)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57-64.
-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수퍼비전 작업동맹과 상담자 경력 수준이 역할 어려움과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95-711.
-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인턴상담원이 지각하는 개인상담 수퍼비전에서의 도움 및 아쉬운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75-90.
- 천영희, 고재홍 (2005). 모-청소년 자녀의 자존감, 성격특성 및 의사소통 방식이 상대방과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APIM 모형의 적용. *청소년상담연구*, 13(2), 47-60.
- 최한나, 김창대 (2008). 좋은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75-90.
- 왕은자 (2001). 소집단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지영 (2005). 수퍼바이저 스타일이 수퍼비전 과

- 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Bahrnick, A. S., Russel, R. K & Salmi, S. W. (1991). The effects of role induction on trainees' perceptions of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 434-438.
- Bordin. E. S. (1983). A working alliance based model of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1, 35-41.
- Campbell, L., & Kashy, D. A. (2002) Estimating actor, partner, and interaction effects for dyadic data using PROC MIXED and HLM: a user friendly guide. *Personal Relationships*, 9(3), 327-342.
- Campbell, L., Simpson, J. A., Boldry, J., & Kashy, D. A. (2005). Perception of conflict and support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role of attachment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510-531.
- Campbell, L., Simpson, J. A., Kashy, D. A., & Rholes, W. S. (2001). Attachment orientations, dependence, and behavior in a stressful situation: a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6), 821-843.
- Cook, W. I., & Snyder, D. K. (2005). Analyzing nonindependent outcomes in couple therap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4), 529-542.
- Efstation, J. F., Patton, M. J., & Kardash, C. M. (1990). Measuring the working alliance in counselor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322-329.
- Farber, B (2006) Supervisee and supervisor disclosure. In B. Farber(Ed.), *Self-disclosure in Psychotherapy* (pp.180-197). New York: Guilford Press.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3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Haynes, R., Corey, G., & Moulton, P. (2006). 상담 및 조력전문가를 위한 슈퍼비전의 실제 [Clinical supervision in the helping profession; A practical guide.].(김창대, 유성경, 김형수, 최한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03년에 출판).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3.
- Kivlighan, D. M. (2007). Where is the relationship in research on the alliance? Two methods for analyzing dyadic data.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423-433.
- Knox, S., Burkard, A., Edwards, L., Smith, J., & Schlosser, L. (2008). Supervisors' reports of the effects of supervisor self-disclosure on supervisees. *Psychotherapy Research*, 18(5), 543-559.
- Knox, S., Edwards, L. M., & Hess, S. A. (2011). Supervisor self-disclosure: Supervisees' Experiences and perspective. *Psychotherapy*, 48(4), 336-341.
- Mehr, K., Ladany, N., Caskie, G. (2010). Trainee nondisclosure in supervision: What are they not telling you? *Counseling & Psychotherapy Research*, 10(2), 103-113.
- Ladany, N. (2002). Psychotherapy supervision; How dressed is the emperor, *Psychotherapy Bulletin*,

- 37, 14-18.
- Ladany, N., Ellis, M. V., & Freidlander, M. L. (1999).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trainee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 447-455.
- Ladany, N., Hill, C. E., Corbett, M. M., & Nutt, E. A. (1996). Nature, extent, and importance of what psychotherapy trainees do not disclose to their supervis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10-24.
- Ladany, N., & Walker, J. A. (2003). Supervisor self-disclosure: Balancing the uncontrollable narcissist with the indomitable altruist. In *S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 611-621.
- Ladany, N., & Walker, J. A. Melincoff, D. S. (2001). Supervisory style: its relation to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and supervisor self-disclosur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0*(4), 263-275.
- Livni, D., Crowe, P., & Gonsalvez, C. J. (2012). Effects of supervision modality and intensity on alliance and outcomes for the supervisee. *Rehabilitation Psychology, 57*(2), 178-186.
- Patton, M. J., & Kivlighan, D. M. (1997). Relevance of the supervisory alliance to the counseling alliance to treatment adherence in counselor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1), 108-115.
- Robins, R. W., Caspi, A., Moffitt, T. E. (2002) It's not just who you're with, it's who you are: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experiences across multipl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70*(6), 925-964.
- Sterner, W. R. (2009). Influence of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on supervisee work satisfaction and work-related stres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1*(3), 249-263.
- Yerushalmi, H. (1992). On the concealment of the Interpersonal therapeutic reality in the course of supervision, *Psychotherapy, 29*, 438-446.
- Yourman, D. B. (2000). *Internalized shamed, representations of the supervisory process, and trainee perceptions of nondisclosure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A Dissertation Presented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Degree The University of Columbia University.
- Yourman, D. B., & Farber, B. A. (1996). Nondisclosure and distortion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Psychotherapy, 33*(4), 567-575.
- Wampold, B. E., & Holloway, E. L., (1997). Methodology, design, and evaluation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research. In C. E. Watkins (Ed.). *Handbook of psychotherapy supervision*. New York: John Wiley.

1차원고접수 : 2013. 06. 30.

수정원고접수 : 2013. 09. 02.

최종게재결정 : 2013. 09. 04.

## **The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of Supervisor and supervisee's self-disclosure and their working alliance on supervision satisfaction**

**Kang, Soon-Wha**

**Ju, Young-A**

**Cho, Hana-Na**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ored the effect of self-disclosure and working alliance,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variables in supervision, on supervision satisfaction of supervisor and supervisee in supervision setting. 170 pairs of supervisors and supervisees, who operated individual supervision, completed questionnaires after the supervision; a total of 168 pairs'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APIM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APIM analysis on self-disclosure influence on supervision satisfaction, disclosure of supervisor and supervisee was positively significant in partner effect as well as actor effect. The relative comparison test result indicated that between the self-disclosure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the supervisee's actor effect was more positively significant than the supervisor's disclosure effect on the supervisee's satisfaction. After conducting APIM on working alliance and satisfaction, only actor effect had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working alliance including both supervisor and supervisee. The research suggests its significance of supervisor variable, which affects supervision satisfaction as well as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supervision education.

*Key words* : supervision, working alliance, self-disclosure, supervision satisfaction, APIM